함즐1011 2009.10.9 19:32 페이지1 MAC-2
C M Y K

놀라운토요일~예수님의모닝콜!

놀토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과 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아침식사와 아침운동으로 건강을 채우는 '예수님의 모닝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커가기를 소망하며 모이는 예수님의 모닝콜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모닝콜 일정》

10.24
믿음의 고백예배: 내 마음은 몇센티일까? – 박혜성 목사
(2부) 아구교실❶ LG 트윈스와 함께
11.14
1318 BIBLE CLUB : JOY – 임경순 전도사
(2부) 아구교실❷ LG 트윈스와 함께
11.28
감사절 감사예배 : 감사는 기본입니다 – 박혜성 목사
12.12
성탄절 예배 : 메리 크리스마스 – 박혜성 목사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와 교회들

우리 주님의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와 교회는 어디인가요?
우리 교회는 여느 교회처럼 주보나 게시판 등에 지원 현황을 알리고 있지 않기에 교우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함즐함울에 싣는다.
아래의 내용은 선교사역본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만을 수록한 것이다(일반 기관 지원은 복지사역본부를 통해 지원된다).
지원현황을 보면, 해외선교 영역에 10개 지역의 아홉 가정, 한 개 기관, 총 11명의 선교사를 협력,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정운 선교사(총회 고문 선교사)는 '선교사들의 선교사'로서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며, 선교현지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선교사들을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농어촌교회 영역은 총 20개 교회를, 도시개척교회 영역은 총 13개 교회를 협력, 지원하고 있다.
주님의교회와 교우들의 기도와 물질적 협력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선교지와 각 교회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해외선교사

이름	내용	주소
서정운	파송선교사	미국 (총회고문선교사)
윤**-김**	파송선교사	K국
이성민-김창숙	파송선교사	캄보디아 프놈펜
금상호	파송선교사	코스타리카
송강호	협력선교사	개척자들
임성익	협력선교사	파라과이
정현희	협력선교사	중국
정채화	협력선교사	헝가리
김주윤	협력선교사	개성
열방치과	협력선교사	우즈베키스탄

●도시개척교회

교 회 명	교역자	주소
동천교회	이준용목사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176-15
읍포교회	구영생목사	경남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 450번지
반천교회	서상희목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391
생명시내교회	김준호목사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313-10 수림빌딩301호
연평교회	이식로목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119
천성교회	임선태전도사	경북 구미시 도량1동 792-216
미동교회	김영경목사	강원도 태백시 원동 6-10
기쁨의교회	정무철목사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3-13
연수교회	장영문목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2리 506
선민교회	김대위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4656 우성3차상가3층
구암리교회	박경남전도사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439-1
칠곡교회	김재홍목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164-1
철암남부교회	지호규목사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3번지

●농어촌교회

교 회 명	교역자	주소	교단/소속노회
안디옥교회	박용재목사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480	통합/전서노회
산야교회	이형근목사	경북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203	통합/경안노회
소망교회	김진호목사	경남 합천군 합천리 309-10	통합/진주노회
강변교회	김민우목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하리 491-1	통합/평양노회
갑산교회	최동규목사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630	통합/진주노회
강독주님의교회	편삼만목사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리 728	기하성/순복음
금성교회	김덕중목사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성리1구 299	통합/평양노회
신천교회	김연주목사	충남 연기군 서면 청라리 166-5	통합/평양노회
사촌교회	김종철목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383	통합/진주남노회
월흥교회	오현환목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647	통합/진주남노회
장산교회	김일권목사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212	통합/진주남노회
시온교회	염덕귀목사	경남 양산시 소주동 335-1 남양상가3층	통합/평양노회
구학교회	김성선목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283	통합/강원노회
금평교회	정두진목사	경남 남해군 이동면 금평리 135	통합/진주남노회
덕천교회	윤점순전도사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297	통합/제주노회
백호교회	윤기성 목사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914-4	합동/함평노회
산성교회	김명민 목사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85-2	통합/평북노회
토말교회	이길호 목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920	합동/목포노회
대연교회	송두환목사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308번지	통합/순천노회
주영교회	조준래 목사	경북 안동시 안기동 경동아파트상가 2층	통합/경안노회

선교사역본부

|오늘의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18

통 권 _ 제 25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10월 11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필립 얀시 초청 가을신앙사경회

'영적 성장의 단계',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진행

필립 얀시 (Philip Yancey)

가을 신앙사경회가 오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영성대가인 필립 얀시(Philip Yancey)를 강사로 영적 성장의 단계,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진행한다.

필립 얀시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온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존 기독교 신앙의 상투성을 예리한 문제의식과 역동적인 필치로 파헤쳐 대안을 모색하는 힘과 매력을 지녔다는 평을 듣는 대 저술가이다. 성경과 시대를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을 쉽게 풀어내는 은사로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 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그의 글쓰기는 평균적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이 품음직한 의심과 갈등, 심지어는 불신에 대한 적나라하고도 정직한 드러내기에서 출발하며, 영적, 문학적 감수성에 목말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원한 단비가 되었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정직한 탐구 자세로 인하여 오늘날 그는 가장 영성이 있는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이런 점들로 인해 "회의론자들과 타종교인들이 가득한 회의장에 초대받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 함께 가고 싶은" 13인의 영적 멘토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필립 얀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 아버지의 자살, 2차 세계 대전 등의 격변하는 흐름 속에서 소년기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몰두하며 글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십 대에 첫 소설「긴 하루의 죽음A Long Day's Dying」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뉴욕 문단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와 슬럼프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게 된다. 그 후 그는 신학도의 길을 거쳐, 목사이자 작가로서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 현재의 삶 속에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섬세한 언어로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소설 분야에서는 퓰리처 상 후보에 올랐던「고드릭Godric」과 내셔널 북 어워드 후보에 올랐던「사자의 나라Lion Country」등이, 비소설에서는「은혜의 알파벳The Alphabet of Grace」,「진실을 말하다Telling the Truth」등 모두 40여 권에 달하는 작품이 있다.『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 ECPA(미국복음주의기독출판협의회) 선정 "올해 최고의 책"을 수상했으며, 모두 9권의 저서가 골드 메달을 수상하였다. 그 외 저서로『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등이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전업 작가로 집필에 열중하고 있으며, "Christian Today"지의 객원 편집인과 칼럼니스트를 겸하고 있다. 김희선 기자

어와나 커비클럽 2면
제1기 싱글 매칭학교 2면
겨자씨 소개 / 사랑나무 소식 3면
선교사 · 교회 지원현황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함즐1011 2009.10.9 19:32 페이지3 MAC-2
C M Y K

5~6세 어린이를 위한 커비클럽 (Cubbies Club)

주님의교회 어와나클럽-불티(7~9세), T&T(10~12세), 트랙(중등부)-은 최근 몇 년 사이 차례차례 오픈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이어서 내년 3월에는 5~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커비클럽(Cubbies Club)이 시작되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커비클럽이란?

커비클럽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5~6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성경의 진리들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경험하고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다. 커비클럽을 통해 어린이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또한, 클럽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원칙과 규율, 약속에 대해 배우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고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간다.

커비클럽의 특징!

❶전체시간 교육(Total Time Teaching: TTT)

전체시간 교육(Total Time Teaching: TTT)이라는 교육 시스템은 커비클럽의 큰 특징이다. 커비클럽의 교육은 클럽에 도착하는 환영시간부터 시작시간, 이야기 시간, 핸드북 시간, 게임 시간에 이어 시상시간과 귀가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교육주제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밀도 있게 진행된다.

❷부모님 양육(Proactive Parent Nurture)

커비단의 또 다른 특징은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어린이들의 가정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다. 커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핸드북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직접 돕게 되며 클럽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

클럽에 자녀들을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활동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가족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교육의 토대를 세워나간다.

❸성구암송

어와나클럽의 특징이자 커비클럽의 특징은 단연 성구암송이다. 어와나클럽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성경구절들을 암송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편 119:1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질 것이라고 믿는다.

유영안 전도사 (010.7788.6281)

Awana Clubs 커비클럽에서 함께 할 리더를 구합니다!

담당	하는일	인원
리더	소그룹의 클럽원들을 지도하고 관리	10명
찬양	클럽원들에게 찬양을 지도	1명
반주		1명
게임리더	클럽원들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연구하고 인도	1명
이야기시간 리더	이야기시간에 클럽원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기	1명
서기	클럽의 자료들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	1명
회계	본부 주문 물품 및 기타 물품을 주문, 구입	1명
스태프	사진, 동영상, 음향장비 등	1명

제1기
주님의교회 싱글매칭학교

배우자를 찾는 '매칭 어브 갓'

Matching Of God

명절 때마다 가족들 보기가 두려운 사람들!
배우자를 찾다가 지쳐 결혼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결혼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내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최선 다하려는 사람들!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님의교회 젊은이사역본부가 주관하는 '매칭 어브 갓' (Matching Of God)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0월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5주간 진행되며, 25세 이상의 크리스찬 싱글 남녀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하며, 교인자녀를 비롯하여 타교인도 가능하며, 추천도 할 수 있다.

문의_ 20대 남녀 담당 고윤석전도사(017-769-5783) 30대 남녀 담당 주선영전도사(010-8827-9770)
마감_ 오늘10.11(주일) 오후4시까지 4층 교역자실 간사 데스크에서 신청함 접수
참조_ 남녀비율에 따라 다음 기수에 참여될 수 있슴
신청비_무료 (단, 프로그램 참여 및 데이트실비는 참가자 부담)
담당_ 젊은이 공동체 공광승 목사(010-4571-8707)

젊은이공동체

아침이 좋은 사람들!

*이 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은 소식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화요일 아침 7시, 모닝커피와 샌드위치...

아니면, 김밥과 차를 마시며 여덟 명의 남성들이 모인다.

장소는 삼성역 인근의 사무실. 다름 아닌 겨자씨모임이다.

직장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녁 시간을 못내는 분들이 멀리 서쪽 일산에서, 동쪽 은구리시에서부터 달려온다. 아마 겨자씨모임 중 가장 일찍 모이는 모임이 아닐까?

대부분의 겨자씨모임이 부부, 남녀 함께 참여하거나 여성모임인데 반해, 남자만 모인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모임은 지난봄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 기간 새로이 시작되었단다. 매주 일정한 시각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30~50대 직장인들이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어나 하반기에는 8명이 모인다. 하반기부터는 소식지를 만들어주시던 이지원 집사가 모임을 이끌고, 찬양인도의 은사를 가진 안정수 집사가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구성원은 모두 가정이 있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침 시간에 참여하기 원하는 남녀 누구나 환영한단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모임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김광일집사를 통해 모임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았다.

"저희 모임은 우선 기타 반주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만으로도 한주의 은혜를 채울 수 있을 정도지요... 저희 모임은 매주 소식지가 나옵니다. 저희의 기도제목이 있는 컬러판 소식지예요... 서로의 대화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모임이 되고 있구요. 세상 속에서 각자 가진 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어느 곳이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편, 여러 이유로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그는 이렇게 권하였다.

"여러 형편상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교우들도 다양한 방법의 겨자씨 모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님이 다양한 겨자씨 모임을 통해 인도 하실 거구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하세요!!"

이미경 기자

사랑나무 소식

함께 함으로 천국의 잔치를 만들고 싶은 소망

사랑나무의 뜻 깊은 날! 지난 9월 27일, 리모델링한 지하주차장의 한 공간에 사랑나무(자폐, 발달장애 및 전반적장애인을 위한 부서) 예배실을 개관했다. 교회가 지하 공간을 장애인을 위한 예배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의 장애인 교회학교는 현재 전국적인 교회 간 네트워크와 연합 사역으로 250여개 교회로 확산일로에 있다고 한다.

아직 주님의교회의 사랑나무는 타부서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 참으로 귀중한 사역이기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현재까지 25주 동안 사랑나무 예배를 드렸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께서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로 그들을 위로하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다. 특히 헌신적인 선생님들은 사역의 특수성을 알고 열심을 내어 평일에 진행되는 전문적인 사역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에는 몇몇 젊은 교사들의 의욕적인 참여로 토요 문화교실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요 문화교실에서는 미술활동, 음악활동,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한 전인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가정에 장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다. 사랑나무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감히 이 아픔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함께 동행 하고자 하며, 감추고 싶을 때 묵묵히 기다리고, 도움을 요구할 때 손과 발이 되고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장애의 가정과 함께 하려고 한다. 사랑나무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함으로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 가고 싶다. 사랑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박현욱 집사(사랑나무 교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